교계복지관, 정성 가득 김장 자비나눔

김장철 맞아 지역 소외이웃에 '훈풍'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먹거리
봉사자들의 열정으로 한가득
다문화가정 · 北이탈주민 체험도

찬바람이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는 요즘,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소외이웃을 위해 교계복지관들이 잇달아 김장을 나눴다. 가뭄으로 인해 쩍쩍 갈라진 대지를 단비가 촉촉하게 적시듯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이웃에게 다가간 자원봉사자들의 자비행이다.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11월 18일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앞에서 열린 'KT&G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릴레이' 에 참여해 각각 김장 2000kg(200박스)과 1800kg(180박스)을 담갔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과 조손가정 등의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12개 복지시설이 참여했다.

두 복지관의 김장에는 119의용소방대원과 강북구독서동아리협의회원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소방관의 상징인 주황색 옷을 맞춰 입은 의용소방대원과 분홍색 조끼를 입고 나온 독서동아리협의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며 배추에 김장양념을 버무렸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를 장단 삼아 흥얼거리는 아줌마와 "늦깎이 가수가 나왔다"며 농을 거는 아저씨까지. 시골마을 김장 품앗이를 연상케 하는 이들의 분주한 손길에 김치를 담은 스티로폼박스가 한쪽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들이 궂은 날씨에도 봉사를 하러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김주영 강북독서동아리협의회장은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아이들이 등교해 같이 올 수는 없지만 매년 김장과 수화봉사 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회활동이 왜 필요한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다"며 "겨울을 앞두고 먹거리를 걱정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의용소방대원은 "아이들이 봉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맞장구를 친 뒤 "최근에 몸짱 소방관들이 달력을 제작해 수익금을 화상환자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봉사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봉사 참여동기를 설명했다.

3~4시간에 걸쳐 모든 배추를 버무린 봉사자들은 포장된 김장을 복지관 차량에 옮겨 싣고 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들은 김장을 저소득가정에 배분했다. 김장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작년에도 복지관에서 김장을 지원해준 덕분에 반찬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고맙다", "감사할 따름이다. 맛있게 잘 먹겠다" 등의 감사인사를 전했다는 후문.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소지 스님(오른쪽 첫 번째)과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강북지역 복지시설장들이 배추에 김장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소지 스님은 "오늘 담근 김장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중한 감로가 되길 바란다"며 "김장뿐만 아니라 추후 소외이웃의 원활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찬)은 17일 우면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랑愛 김장김치 나눔행사' 를 열고, 서초구 지역 내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1100세대 가정에 김장 4000kg을 전달했다. 분당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학산)은 14일 분당 대광사에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 지역 저소득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800곳에 각각 김장김치 10kg을 지원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김장 버무림 체험, 북한음식 나누기 부스 등을 운영해 봉사자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도 11월 11일과 13일 각각 성북구청과 성신여고에서 김장을 담가 저소득가정 160세대에 김장 10kg씩을 배달했다.

한편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경)은 오는 27일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와, 12월 10일 한국정보통신과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지역 소외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프놈끄라옴-수원마을 3단계 지원

로터스월드-수원시 17일 캄보디아 씨엠립주서 비전 선포

수원시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국제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월드가 씨엠립주 프놈끄라옴-수원마을의 향후 3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1월 17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초 · 중학교에서 3단계 비전 선포식을 실시했다.

로터스월드와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2단계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마을개발운영위원회,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초 · 중학생을 위한 영어 · 한국어 · 태권도 등 특성화교육, 우물 및 공동화장실 유지 · 보수, 마을공동자립작업장 건립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3단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중 · 고교 신축 및 학교운영 지원 △수원마을 내 위생시설 유지보수 및 기존학교 환경개선사업 △마을운영위원회 · 청년회 등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사찰 · 학교 · 경찰서 및 기타 관공서와의 협조 · 사업공유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마을 구축(정수시설, 공용전기, 가옥개량) △마을개발사업 역량강화 및 주민교육(캄보디아어 · 기초수학) 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씬런 씨엠립 부주지사에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프놈끄라옴-수원마을은 수원시와 씨엠립주가 2004년 국제자매도시 결연 이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2007년 선정한 국제협력사업 마을이다. 로터스월드와 수원시는 이 마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해 교육 · 의료 등의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윤호섭 기자

진오 스님, 해외아동 위해 3000km 달린다

1년간 월정사-울릉도-제주도-조계사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님의 달리기는 끝이 어디일까. '달리는 스님' 진오 스님 〈사진〉이 베트남과 네팔 아동을 돕기 위해 국내에서 3000km를 달리는 대장정을 펼친다.

진오 스님(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은 11월 18일 평창 월정사를 출발해 1년간 울릉도-독도-제주도를 거쳐 서울 조계사까지 약 3000km에 달하는 탁발 마라톤에 도전한다. 매월 1~2회씩 회당 7일간 달려 조계종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순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라톤은 베트남 학교 108개 화장실과 네팔 지진 피해지역 학교 건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1km를 달릴 때마다 100원씩 모연해 전달할 예정이다. 스님은 지난 2000년 경북 구미에 꿈을이루는사람들을 설립, 이주노동자 상담센터와 외국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사단법인 인가 후에는 북한이탈청소년 쉼터와 다문화 달팽이모자원 등을 설립했다.



진오 스님은 "내가 가진 것은 두 다리 밖에 없다. 몸은 힘들겠지만 나누는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길에서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나선다"며 "작은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해외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출발 소감을 밝혔다.

진오 스님은 그동안 한반도 · 베트남 · 독일 · 일본 등 각지에서 총 8000km를 달려 3억 원을 모아 사회 곳곳에 후원했다. 이번에 계획한 3000km 탁발 마라톤 외에도 베트남 2차 종주(약 1200km)와 네팔 카트만두-룸비니(약 500km)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공예 재밌어요!"

성북노인福,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

어르신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며 세대 차이를 좁히는 시간을 보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경희)은 11월 12일 관내에서 노인세대 여가지원 프로그램 '동거동락 지식나눔활동' 을 실시했다.

동거동락은 성북구청 평생학습관 공모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공예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내 지식나눔활동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지식나눔활동은 종암동 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 10명이 직접 일일강사가 돼 초등학생들에게 한지거울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친구들과의 야구경기에 장애는 없어요!"

한솔복지관 장애아동 야구단 일반아동과 친선경기로 화합

지역복지관 장애아동 야구단이 일반아동 야구단과의 친선경기를 통해 장애를 뛰어 넘은 우정을 쌓았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 베스트원 야구단은 11월 15일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백현야구장에서 수정구 리틀야구단과 친선경기를 펼쳤다. 베스트원 야구단은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비장애아동의 긍정적인 장애 수용태도 형성을 돕기 위해 2013년 창단했다. 현재 초등학생 장애아동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경기는 한솔종합복지관장 가섭 스님의 시구로 시작됐다. 이후 베스트원 야구단과 수정구 리틀야구단은 각자의 실력을 아낌없이 뽐내며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7대 0으로 수정구 리틀야구단이 승리했지만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경쟁보다는 화합을, 편견이 아닌 우정을 다졌다. 또한 베스트원 부모 서포터즈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며 간식을 함께 나눴다.



한솔복지관 베스트원 야구단과 수정구 리틀야구단이 친선경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종합복지관장 가섭 스님은 "처음엔 공도 잘 잡지 못했던 친구들이 3년간의 연습을 통해 경기를 잘 치러내는 것을 보니 기특하고 감동적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다른 야구단과 활발하게 교류해 아이들의 사회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